

## 인도 통합물품세(GST) 세수 부진 지속

- 2019/20회계 연도 1분기(4~6월) 인도의 통합물품세 (GST: Goods & Service Tax)<sup>1)</sup> 수입이 약 3조 루피 (약 450억 달러)에 그치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sup>2)</sup>
  - 2019/20년 예산안에<sup>3)</sup> 명시된 GST 예상 세수입 규모는 7.6조 루피였으나 세수입 부진이 지속될 경우 2020년 3월까지 약 1.2조 루피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sup>4)</sup>
    - 6월 세수입이 약 9,990억 루피에 그치며 4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 7월 환급 이후 순 수입 규모는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sup>5)</sup>
  - GST 세수입 부진으로 2019/20년 GDP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당초 목표치인 3.4%에서 3.6%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
  - 인도 정부는 2018/19년에도 세수입 감소(직접세, GST)와 성장률 둔화로 재정적자 목표치를 3.3%에서 3.4%로 수정한 바 있음.<sup>6)</sup>

그림 1. GST 월별 세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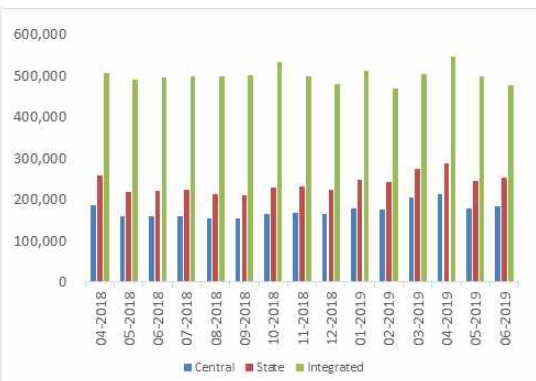
(백만 루피)



자료: CEIC (2019.7.3.)

그림 2. 항목별 GST 원별 세수입 추이

(백만 루피)



자료: CEIC (2019.7.3.)

- GST 도입 후 세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수 부진은 수요 감소, 세율 인하, 세금 탈루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함께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내구재와 일용품인 비내구재

1) 인도정부는 중앙정부와 주정부별로 난립되었던 복잡한 간접세를 하나의 단일 세제로 통합하기 위해 2017년 7월 통합물품세를 도입함.  
 2) GST는 전체 세수입의 약 35%~40%를 차지함.  
 3) 2019/20 회계 연도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기간임.  
 4) Business Standard (June 21, 2019). "Tax officials may ask for 6% reduction in collection target in Budget 2019".  
 5) 당초 예산안의 GST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매월 1.1조 루피 이상의 안정적인 세수입 확보가 필요 (Kotak Securities. (July 1, 2019). "GST collections continue to disappoint".  
 6) The Economic Times (Jun 01, 2019). "Government meets fiscal deficit target of 3.4% for 2018-19".

소비 부진이 세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임.<sup>7)</sup>

-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2018/19년 4분기(1~3월)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5.8%까지 하락, 최근 5분기 연속 하락세 지속<sup>8)</sup>
- 대표적 내구재인 자동차(이륜, 상용 포함) 판매는 2018년 11월~2019년 5월까지 7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 지속<sup>9)</sup>
- 또한 최근 인도정부의 단계적 세율 인하 조치가 소비 증대 보다 오히려 세수입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sup>10)</sup>
- GST위원회는 2017년 7월 GST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세율을 지속 인하, 그 결과 28% 세율 적용 품목 군이 230개에서 30개로 감소함.<sup>11)</sup>
- 한편 가짜 영수증 및 송장 등을 이용한 기업들의 불법 GST 환급 역시 대표적인 세금 탈루 방법으로 활용
- 인도정부는 2018/19년 약 1,100억 루피, 2019년 4월~6월 약 256억 루피 규모의 가짜 GST 영수증 및 송장을 추적<sup>12)</sup>

표 1. 최근 GST 세율인하 경과

구분	주요내용
2018.12	- 상품: TV, 디지털카메라, 타이어,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등 - 서비스: 항공, 영화, 보험 서비스
2018.7	- 상품: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트레일러, 특수자동차 등 - 서비스: 전자북 서비스, 농업 관련 서비스, 정부 서비스, 금융 서비스 등
2018.1	- 상품: 보석, 섬유류, 가정용 LPG, 중고차 등 - 서비스: 법률서비스, 교육서비스 등

자료: 언론자료 종합.

- GST 세수 부진으로 재정건전성 악화→정부 지출 감소→성장 둔화의 악순환이 우려되는 가운데, 세수 확대를 위한 인도정부의 대응은 사실상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GST 세율 인하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높으나 소비심리가 침체된 상황에서 추가 인하를 통한 세입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다만 GST 위원회는 거래 투명성 개선을 통한 세금 탈루 방지를 위해 전자 송장 및 영수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임.<sup>13)</sup>

<자료: The Economic Times, Business Standard 등>

송영철 전문연구원

7) The Economic Times (May 07, 2019), "India's consumption story losing the plot".

8) 민간 소비 증가율은 7.25%로 2018년 9월 이후 2분기 연속 하락세, 또한 투자는 3.3%로 2015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9) 2019년 5월 기준 소비자신뢰 지수는 97.3으로 3월 이후 다시 100 이하로 감소함.

10) Business Standard (July 2, 2019). "GST collection falls below Rs 1-trillion mark, first time in four months".

11) Financial Express (June 12, 2019). "GST rates: Centre to resist demand for pruning 28% slab".

12) Business Standard (July 2, 2019). "GST collection falls below Rs 1-trillion mark, first time in four months".

13) The Economic Times (Jun 11, 2019), "More items likely to go off highest GST slab".